

# 21

## 부산 승마 협회

우리나라의 승마는 고대사회에서부터 농경 및 교통수송수단으로 이용되는 한편 전쟁에서는 꼭 필요 한 전쟁수행수단으로 발달했다. 이후 한국 승마가 무예로서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조선시대 광해 군 때로 무과 채용고시에 포함된 마상재(馬上才)라는 승마기술이 대두한 때부터이다. 마상재는 한국 승마자체의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큰 몫을 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3·1운동 이후 점차적으로 승마경기의 틀이 잡혀 가면서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우리나라 학생들로 이뤄진 승마 단체인 '한국학생마술연맹'이 결성됐다. 그해 10월 '대한승마 협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 출전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한 차례 좌절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에 민병선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침체를 면치 못하다가 88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발전해 현재는 아시아권에서 선두다툼을 벌이며 중상 위권의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부산승마협회는 1963년 영도구 제2송도 경찰기마대 내에 창설됐다. 이후 서면동보극장 옆 공병 경리단을 거쳐 1965년 온천장 조폐공사 밑 부지로 이전했다가, 1970년 현 소재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 46-7에 등지를 틀었다.

역대 회장직은 대량제분 김치근 초대회장이 취임한 이래 8년 만인 1970년 3월 부산시체육회에 정식 가맹단체로 등록되면서 김종열, 김성철, 추상명, 제종모, 손범용, 최일용, 정범식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부산승마협회는 출범 초기 이상수, 권순희, 김대경, 박종빈 외 경찰기마단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맹 활약했다. 이후 부산승마협회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부산경남여고 출신의 이진경 선수가 장애물 비월경기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아테네올림픽대회에 출전했던 부산 수영중 출신인 황순원 선수가 장애물 단체전 9위, 개인전 2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부산승마협회 송상욱(경남고), 황순원 선수의 뛰어난 기량에 힘입어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 현직 회장

이종대  
부산경남경마본부장

### 역대 회장

제1대	김종열	1976.01~1978.12
제2대	김성철	1979.01~1981.12
제3대	추상명	1982.01~1983.12
제4대	제종모	1984.01~1984.12
제5대	손범용	1985.01~1985.12
제6대	김성철	1986.01~1986.12
제7대	손범용	1987.01~1991.12
제8대	최일용	1992.01~1992.06
제9대	정범식	1992.07~1998.02
제10대	권홍사	1999.06~2000.09
제11대	김종각	2000.09~2003.01
제12대	이호식	2003.12~2008.03
제13대	김성언	2009.08~2010.09
제14대	박성호	2010.10~2011.02
제15대	조정기	2011.02~2012.02
제16대	이종대	2012.02~현재

### 현직 회장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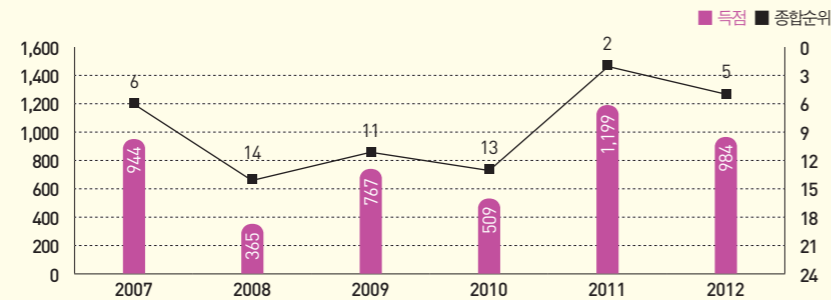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부회장	이종석	(주)창보 대표이사	
	조순현	(주)동해목재 대표이사	
부회장 겸 전무이사	배진문	자영업	
경기이사	이준희	한국마사회 마사보건팀 과장	
	강태경	국제항공 대표이사	
	손진우	영도구청 공무원	
	신승환	자영업	
	안수근	동아대학교 동창회 사무처장	
	우형철	협동안전 대표이사	
	이사	이경애	자영업
		이경희	자영업
		이윤철	흥인한의원 원장
		이흥수	(주)PSG 대표이사
정동철		자영업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2/8	-	-	-	-	2/8
2008	2/7	-	-	-	-	2/7
2009	2/8	-	-	-	-	2/8
2010	7/13	4/4	-	-	1/1	2/8
2011	7/20	1/1	2/2	1/1	-	3/16
2012	5/15	0/0	1/1	2/2	0/0	2/12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6(944)	0/1/0	-	-	6(944)
2008	14(365)	0/0/0	-	-	14(365)
2009	11(767)	0/1/0	-	-	11(767)
2010	13(509)	0/0/0	-	-	13(509)
2011	2(1,199)	0/1/0	-	-	2(1,199)
2012	5(984)	1/0/0	-	-	5(984)



# 22 부산 체조 협회

**현직 회장**  
**송규정**  
 (주)윈스틸 회장  
 - 1976.03 동명철강 사장  
 - 1983.12 남구 라이온스클럽 회장  
 - 1986.03 (주)윈스틸 사장  
 - 1999~2002 서울대학교 부산총동창회장  
 - 1999~2002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2002.11~현재 부산시 체조협회장  
 - 2004.03 제18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2012~현재 제18대 부산상공회의소 고문  
 - 2013.02~현재 부산광역시 가맹단체연합회 회장

부산지역에 체조가 처음으로 보급된 시기는 1950년경으로 추정된다. 경남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체조선수로 활약한 김문준 선생이 부산지역의 체조부를 설치한 것이 부산 체조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문준 선생과 함께 강재형, 김영명, 황성길, 정형근 등 4명의 선수출신 지도자가 평화중고(현 부산동고), 데레사여중·여고, 선수 외에 일반부와 초등학교선수 등 총 35명의 선수를 지도했다.

제1회 부산협회장기체조선수권대회가 1958년 7월에 부산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1959년 8월 제2회 대회가 개최됐다. 1967년도 이후 부산 데레사여고의 신달선, 이양자 선수가 각종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으로 맹위를 떨치며 부산 체조의 상위 입상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부산에서는 대학에서 체조부를 육성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우수선수들은 거의 경희대(정형근, 신달선, 이양자)와 한양대(반태기)로 진학했다.

1972년 제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한충식(부산성남국), 1974년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김명철(가야국), 1975년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장춘태(가야초) 선수가 각각 개인종합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발판으로 2001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 체조 사상 남자초등부(중앙초), 여자초등부(전포초)가 동반 단체우승과 동시에 고정보(중앙초) 선수가 4관왕이라는 쾌거를 올리며 부산 체조의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이후 부산지역 체조 중흥에 뜻을 둔 여러 지인들과 부산시체육회에 의해 1980년 당시 현승훈(당시 화승그룹 회장) 회장을 부산체조협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승훈 회장은 부산 체조 발전을 위해 1984년 4월 동래구 사직동 150-1 지역에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인 포디움을 설치한 체조전용체육관인 현 사직체조체육관을 건립했다.

이어 권오현(전 부산일보 사장) 회장, 김성철(부산국제토건 회장) 회장이 부산체조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송규정 윈스틸·부산시 가맹단체연합회 회장이 부산 체조 발전을 위해 계속 부산체조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부산체조협회에는 초·중·고 및 일반부 총 14개 팀, 80여 명의 선수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표**

연도	내용
1984	사직체조체육관 준공
2000	삼부 월드컵체조대회 개최
2006	부산광역시체육회 송공상 수상

**역대 회장**

제1대	이동호	1971.08~1979.12
제2대	이상갑	1980.01~1980.12
제3대	현승훈	1981.01~1991.12
제4대	권오현	1992.01~1993.12
제5대	김성철	1994.05~1997.08
제6대	양재혁	1997.09~2000.08
제7대	송규정	2002.08~현재